

# Saul Bellow의 소설에 나타난 삶의 탐구와 의미\*

양 경 주\*\*

## I

“인간과 삶이 무엇인가?”하는 문제는 철학이나 종교에서만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인간과 삶의 문제는 문학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다루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다루게 될 영속적 주제이며, 또 어떻게 보면 문학이 다루는 거의 모든 주제가 여기에 귀속되고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aul Bellow의 경우에는 이 인간과 삶의 문제가 그의 여러 소설들의 주제들을 단지 포괄하여 보여 주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K. M. Opdahl이 모든 소설가는 단 한가지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고, 설사 plot이 다르고 character들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plot과 character들은 동일한 문제상황을 보여 주며, 소설가들은 그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애를 쓴다고 말한 바 있듯이,<sup>1)</sup> 이 문제는 Bellow를 항상 사로잡고 있었고, 또 그가 해결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추구해 온 그의 소설의 핵심적 문제이며, 그의 소설의 기저(基底)를 이루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Howard M. Harper Jr.는 Bellow의 “Human life is...ultimately a mystery.”<sup>2)</sup>라는 말을 인용

---

\* 이 논문은 1987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문대학 부교수

1) Keith Michael Opdahl, *The Novels of Saul Bellow*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67), p. 3.

2) Saul Bellow, *Recent American Fiction* (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 1963), p. 12, quoted in Howard M. Harper Jr., *Desperate Faith*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7), p. 63.

하면서 이 인생의 mystery를 탐구하는 것이 Bellow 예술의 목표라고 말하여<sup>3)</sup> 삶의 탐구가 Bellow 소설의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Bellow 자신도 작가의 도덕적 직무는 우리가 삶을 포기치 않고 살아가기를 원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바른 삶인가 하는 질문에 답변하는 일이라고 말하였고,<sup>4)</sup> 또 노벨 문학상 수상연설에서는 reality의 파악이 예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Only art penetrates... the seeming realities of this world. There is another reality, the genuine one, which we lose sight of. This other reality is always sending us hints, which, without art, we can't receive. Proust calls these hints "our true impression." The true impressions, our persistent intuitions, will, without art, be hidden from us and we will be left with nothing but a "terminology for practical ends which we falsely call life."<sup>5)</sup>

문학의 가치가 다름 아닌 삶의 실재(reality)를 포착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순수한 느낌(true impression)에 있으며, 예술은 삶의 실제적 사건들이나 일들 그리고 이 우주 속에서 근본적이고, 영속적이며, 본질적인 것(what is fundamental, enduring, essential)을 찾아내려 한다고 말하여<sup>6)</sup> 삶의 탐구의 문제가 그의 예술의 중심적 과제이자 목표가 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필자는 Bellow 소설의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중심적 문제이며, 또 그의 예술 목표였던 삶의 탐구의 문제, 즉 인간과 삶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그의 소설 속에서 어떻게 해명되고 있는지를 밝혀 보임으로써 그의 소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그의 첫 소설인 *Dangling Man*에서 *Herczog*에 이르는 작품을 검토의 대상으로 한정했다. 그것은 Bellow의 작품들이 최근에 발표된 *More Die of Heart Break*(1987)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다는 데도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필자의 견해로는 필자가 논의하려는 이 문제를 Bellow는 *Dangling Man*에서 *Herczog*에 이르기까지의 작품들을 하나의 틀로 구성하여 다루고 있고, 또 이 문제가 *Herczog*에서 일단 마무리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II

Bellow 소설의 제일차적 과제가 삶의 탐구에 있음은 *Dangling Man*에서부터 분명해진다. 왜냐

3) Howard M. Harper Jr., *Desperate Faith*, p. 63.

4) Saul Bellow, "The Writer as Moralist," *Atlantic Monthly*, CCXI (March 1963), p. 62, quoted in John J. Clayton, *Saul Bellow: In Defense of Man*, p. 5.

5) Saul Bellow, "There is Much More to Us...", *Dialogue*, Vol. 10, No. 3 (1977), p. 57.

6) *Ibid.*, p. 67.

하면, 이 소설은 얼핏 볼 때 주인공 Joseph가 처해 있는 고통스럽고도 부조리스러운 인간상황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겪게 되는 소외와 고뇌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인간과 삶에 대한 Joseph의 집요한 탐구와 좌절이라는 문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Joseph는 미육군(美陸軍)의 징집에 응소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그가 Canada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징집이 무기한 연기되어, 직장으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징집을 기다릴 수만도 없는 어처구니 없고도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인간과 삶을 해명하려는 커다란 야심에 찬 욕구를 갖고 있는 인물로서 그의 행동이 그러한 욕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인물이며, 그가 처하게 되는 소외의 상황이나 괴로움도 "But the seven months' delay is only one of the sources of my harrassment"<sup>7)</sup>라는 그의 말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듯이, 단순히 그가 처하게 되는 불만스럽고도 고통에 찬 상황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는 삶을 탐구하려는 그의 심층적 욕구가 완전히 좌절에 이르게 됨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소설은 바로 삶을 규명하려는 Joseph의 욕구와 그 좌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Joseph가 삶의 탐구라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임은 그의 자의식(自意識)이 형성되는 10대 후반에서부터 27세인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일련의 행동을 분석해 보면 쉽게 드러난다. 이러한 그의 욕구는 먼저 그가 17세 때 벌써 공산주의자가 되어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와 그 슬로전인 "United Front from Below"에 대하여 꽤 전문적인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며, Marx의 이론에 따라 이 세계를 개혁하려는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했었다는 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가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게 된 것은 Marx의 이론이 이 혼란스런 인간의 삶을 명쾌하게 해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며, 또 공산주의 혁명이야말로 이 세계에 새로운 의미와 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그의 행위의 근저에는 삶의 탐구라는 그의 욕구가 행위의 직접적 동기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sup>8)</sup>

Joseph가 Wisconsin대학 재학시에 역사를 전공했다는 사실도 인간과 삶에 대한 그의 관심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는 그의 욕구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여 인간의 삶을 해석하려 했던 시도가 실패로 끝났지만 그의 삶의 탐구라는 욕구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하여 그를 사로잡고 있음은 그가 Marx의 이론에 의한 혁명가가 되기보다는 많은 정치철학자들의 이론을 빌어 인간과 이 세계를 해명하려는 그의 노력, 다시 말하면 제2의 Locke가 되려는 야심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Joseph는 그 후 공산당의 보고서는 휴지조각처럼 무시해 버리고,

7) Saul Bellow, *Dangling Man* (Penguin Books, 1944), p. 10.

8) Joseph가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는 행위에 삶의 탐구라는 욕구가 행위의 동기로서 작용하고 있음은 그가 얼마없어 공산혁명만 하나의 망상(妄想)이며, 공산주의 운동은 결국 전체정치에 협력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Marx의 이론에 의한 삶의 해명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곧 공산주의 운동과 결별하는 데서 분명해진다.

.*Anti-Dühring*이나 *The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등의 책 대신에 Bentham이나 Locke의 책에 몰두하게 된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그가 대학을 졸업하여 보잘것 없는 직장인 Inter-American Travel Bureau에 다니게 되고, 또 셋방살이를 전전하면서도 계속된다. 그는 계속 책더미 속에 묻혀 살면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를 다룬 소논문(小論文)을 집필할 정도로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게 된다.

삶에 대한 탐구라는 그의 욕구가 그를 사로잡고 있으며, 그가 삶에 대한 탐구의 인물이 되고 있음은 그가 처하게 되는, 즉 사회인으로서도 남아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군인으로서의 신분도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거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그에게 가져다 주는 자유를 만끽하며, 그런 기회를 이용하여 잠시 중단되었던 인간과 삶에 대한 탐구작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있다는 데서 더욱 확인해진다. 다시 말하면, Joseph는 삶의 부조리함에 짜부러들어 삶의 무의미함에 괴로와 하는 소외의 인물이 아니라, 인간과 삶의 본질을 밝히려는 Bellow 소설의 중심적 과제를 짊어지고 삶의 무의미함을 거부하는 탐구의 인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삶에 대한 탐구의 인물로서 Joseph의 세계는 상당히 이상주의적(理想主義的)이고, 또 이성주의적(理性主義的)이다. 그는 한 때 인간을 신(神)과 악마가 인간의 영혼을 뺏으려고 다투는 만큼 귀중하고 그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던 인물이었다.<sup>9)</sup> 그러나 인간의 고귀함을 주장하는 그의 인간에 대한 이러한 신념은 인간의 왜소함과 무의미함을 설파하는 현대문명과 인간에 대하여 논리적 이해를 불가능케 하는 혼란스러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하에서 그는 인간과 삶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즉 Joseph 자신의 말을 빌자면, "How should a good man live; what ought he to do?"<sup>10)</sup>라는 질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고귀하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그의 이상주의적 신념을 결코 포기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계가 선과 악 양면이 있는 혼란스런 세계이고, Hobbes의 말대로 이제는 이 세계가 점차 야만스럽고 위험에 찬 곳이 되어 가고 있어서, 이 야만성과 위험성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재는 "불결하고 야수적이며 단기적(短氣的)인(nasty, brutish, and short) 것이 될지도 모르지만<sup>12)</sup> 그러한 상황은 하나의 계획(a plan)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의 관념적 구성(an ideal construction)"<sup>13)</sup>에 의하여 개선이 가능하며, 인간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의하여 완전한 인간

9) Saul Bellow, *Dangling Man*, p. 73.

10) *Ibid.*, p. 32.

11) *Ibid.*, p. 55.

12) *Ibid.*, p. 32.

13) Joseph는 그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인 "the Spirit of Alternative"와의 대화에서 이 "계획," "관념적 구성"이 이 현실의 혼돈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Ibid.*, 115-16.

'What to do under the circumstances.'

'Try to live.'

'How?'

(whole man)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sup>14)</sup> 그래서 그는 자신을 "that creature of plan"이라고 부르고 있듯이,<sup>15)</sup> 그 자신과 부인 Iva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그의 인식(認識)의 틀인 "관념적 구성"에 의하여 파악하고 "계획"에 의하여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삶을 이론화하여 논리적으로 파악하려 했던 Joseph의 야심에 찬 시도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게 되고, 그것이 불가능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선 그는 지난 7, 8년 동안 "general plan"에 입각하여 자신의 행동을 규율해 왔으며, 또 Iva를 그의 계획하에 통제하며 그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Burkhardt's great ladies of Renaissance"나 "the less proud Augustan women"과 같은 여성으로 만들려고 하였다.<sup>16)</sup> 그러나 그는 그 자신도 "관념적 구성"에 의하여 파악한 것처럼 그렇게 이성적이며 이상주의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는 Kitty Daumler와의 정사관계(情事關係)와 형수 Dolly와 조카 Etta에 대한 성충동(性衝動)을 통하여 그 자신에게도 "관념적 구성"이나 "하나의 계획"에 의하여 파악하고 통제할 수 없는 비이성적 요소와 내재악(內在惡)이 잠재해 있음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Iva에 대한 그의 계획도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그녀는 "Servatius party"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그의 계획에 따라 지도받기를 회피하고, 그의 이상에 따라 그녀 자신이 형성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Jacob Boehme를 읽으라고 강요해도 의복 등에 대한 그녀의 욕구를 감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Walden*의 내용을 가르쳐주어도 그녀가 현웃만으로 살아가기란 무리란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Tu Us Raison Aussi, you're not giving much help. By a plan, a programme, perhaps an obsession.'*

*'An ideal construction.'*

*'A German phrase. And you with a French name.'*

*'I have to be above such prejudices.'*

*'Well, it's a lovely phrase. An ideal construction, an obsessive device. There have been innumerable varieties: for study, for wisdom, bravery, war, the benefits of cruelty, for art: the God-man of the ancient cultures, the Humanistic full man, the courtly lover, the knight, the ecclesiastic, the despot, the ascetic, the millionaire, the manager. I could name hundreds of these ideal constructions, each with its assertions and symbols, each finding-in conduct, in God, in art, in money—its particular answer and each proclaiming: "This is the only possible way to meet chaos." Even someone like my friend Steidler is under the influence of an ideal construction of an inferior kind. It is inferior because it is loosely made and little thought has gone into it. Nevertheless it is real.*

14) Joseph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신(God)에 의지하는 것은 실의와 혼란 속에서 실질적이며 절박한 두려움 때문에, 마치 어떤 질병에 대하여 치료만을 바라고 치료방법을 묻지 않는 것과 같이 비참한 행복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거부하고, 신(God)에 의지하는 등의 어떤 기존장치(any contrivance)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理性)에 의지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이성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Ibid.*, p. 55.

15) *Ibid.*, p. 32.

16) *Ibid.*, p. 81.

그러나하면, 그는 "관념적 구성"에 의한 이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모두를 덮치고 있는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인간의 모든 것을 "관념적 구성"에 의하여 파악하고 계획에 의하여 실현하려 했던 Joseph로서는 이 "죽음"의 문제가 "관념적 구성"이나 "계획"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임을 절감하게 된다. 그는 "관념적 구성" 중의 하나인 기독교 사상에 의하여 죽음을 초월할 것을 가르치며 시장바구니에 Christian Science 문헌을 가득 담고 돌아다니는 한 부인의 모습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고는 "ideal construction"이나 "plan"에 의한 죽음의 파악과 초월이 불가능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는 점차 우리가 인생의 궁극에 도달하려면, 거기에는 계획과 이상화(理想化)가 필요하지만 그것 또한 기생충처럼 우리 인간을 소모시켜서, 우리를 갉아먹고, 쇠약하게 하며, 마지막에는 허탈상태에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sup>17)</sup> 다시 말하면, 그가 "But what of the gap between the ideal construction and the real world, the truth?"<sup>18)</sup>라고 말하고 있듯이, "ideal construction"은 결국 삶의 실재를 밝히는 작업이 아니라 삶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즉 John J. Clayton의 표현을 빌자면 "ideal construction"은 "created reality"<sup>19)</sup>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이 현실 속의 삶이 아무리 불합리해 보이고 추악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현실과 불가피하게 얽혀 있고, 또 그 현실에서 빠져 나갈 수 없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현실에서 도피하려 하여도 이 현실 세계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현실 속으로 끌어들이게 되며,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현실을 거부할 수 없음을 자각하기 시작하여,<sup>20)</sup> 결국 그는 그러한 현실 속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삶 그 자체가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된다.

게다가, 그는 모든 노력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최종목적은 "순수한 자유에의 열망(the desire for pure freedom)"이라고 믿고 있는,<sup>21)</sup> 즉 자유를 최고의 이상(理想)으로 여기는 인물이며, 또한 Goethe의 말을 빌어 "Continued life means expectation. Death is the abolition of choice."라고 말하고 있듯이,<sup>22)</sup> 삶을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의 가능성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 자신이 "I do not know what to do with my freedom."이라고 고백하고 있듯이<sup>23)</sup> 선택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자유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되고, 죽음이 또한 선택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으며, 또 모든 상식(common sense)의 대상, 그 자체 속에도

17) *Ibid.*, p. 73.

18) *Ibid.*, p. 116.

19) John J. Clayton, *Saul Bellow: In Defense of Man*, p. 78.

20) Saul Bellow, *Dangling Man*, p. 113.

21) *Ibid.*, p. 128.

22) *Ibid.*, p. 122.

23) *Ibid.*, p. 125.

상식과 배반되는 요소가 있음을 자각하게 됨으로써<sup>24)</sup> 삶이란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 관점으로 이론화하여 파악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마침내 그로 하여금 그의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현실인식, 즉 이론적 틀에 의하여 인간과 삶의 실체를 관념적으로 파악하려 했던 그의 노력을 포기케 하고 있다. 그는 그때까지 그의 하숙방에서 수 개월 동안 걸려도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전쟁의 폭력이 가르쳐 줄 것으로 믿으며 군대로 자원입대하여 그가 그토록 거부했던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는 삶에 대한 관념적 이론적 파악이 불가능함과 함께 삶에 대한 경험적 파악이 불가피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Such reality, I thought, is actually dangerous, very treacherous. It should not be trusted. And I rose rather unsteadily from the rocker, feeling that there was an element of treason to common sense in the very objects of common sense. Or that there was no trusting them, save through wide agreement, and that my separation from such agreement had brought me perilously far from the necessary trust, auxiliary to all sanity. I had not done well alone. I doubted whether anyone could. To be pushed upon oneself entirely put the very facts of simple existence in doubt. Perhaps the war could teach me, by violence, what I had been unable to learn during those months in the room. Perhaps I could sound creation through other means. Perhaps. But things were now out of my hands. The next move was the world's. I could not bring myself to regret it. I am no longer to be held accountable for myself; I am grateful for that. I am in other hands, relieved of self-determination, freedom cancelled.

Hurray for regular hours!

And for the supervision of the spirit!

Long live regimentation!<sup>25)</sup>

### III

*The Victim*의 주인공 Leventhal은 Joseph처럼 삶에 대하여 그렇게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의식적으로 삶의 문제를 탐구하려드는 인물도 아니다.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중심적 문제도 일차적으로는 이 소설의 epigraph로 사용되고 있는 *Thousand and One Nights* 중의 "The Tale of the Trader and the Jinni"가 보여주고 있듯이 "moral responsibility"의

24) *Ibid.*, p. 158.

25) *Ibid.*, pp. 158-59.

문제다. 즉 이 소설은 epigraph에서 먼 길을 가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대추야자를 먹고나서 씨를 내던진 한 상인과, "네가 던진 대추야자 씨에 이 곳을 지나던 내 아들이 가슴에 맞아 죽었으니, 네 놈을 죽이겠다"고 칼을 휘두르며 상인 앞에 나타난 악귀(Ifrid)와의 관계를,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으로부터 "내가 직장을 잃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다"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Leventhal과 그러한 비난을 가하는 Allbee와의 관계로 대비시켜, 우리는 행동의 결과가 자신의 의도와 전혀 무관한 결과를 낳았을 때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The Victim*도 그 심층적 문제는 "삶이란 무엇인가?"하는 문제로 귀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Leventhal과 Allbee와의 부조리스러운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소설의 "moral responsibility"의 문제는 바로 *Dangling Man*에서와 마찬가지로 삶은 이성적·논리적 파악을 초월해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Leventhal이 불가피하게 삶의 문제에 휘말려들어 삶에 대한 그의 고착된 결정론적(決定論的) 세계관이 삶의 현실과 충돌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어떤 고착된 이론의 틀에 의하여 파악된 인생의 모습은 인생을 밝혀주기보다는 인생을 왜곡시켜 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Leventhal은 Joseph와 마찬가지로 딱 굳어진 하나의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그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을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인물이다. 그가 Joseph와 다른 점이 있다면, Joseph가 인간의 삶을 계몽주의적 이상주의의 입장에서 파악하려 하고 있음에 비하여 그는 삶을 상당히 비관주의적 결정론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점 뿐이다. 다시 말하면, Joseph는 인간본성의 고귀함과 인간의 능력, 특히 이성적 능력을 믿고, 인간의 개선의 가능성을 철석같이 신봉했던 인물이라면, Leventhal은 그와 정반대로 인간의 삶이 고귀해질 가능성을 전혀 믿지 못하는 인물로서 이 세계의 움직임을 단지 "거대하고 맹목적인 움직임(all blind movement, vast movement)"으로 보며,<sup>26)</sup> 인생은 "설 사이도 없이 날마다 계속되는 투쟁(an unremitting daily fight)"이고 "모든 것은 난장판이고, 우연적이고, 되는대로이다(It was a shuffle, all, all accidental and haphazard)"라고<sup>27)</sup> 여기는 인물인 것이다.

Leventhal의 이러한 삶에 대한 태도는 돈밖에 모르고 살았으면서도 가난뱅이로 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다시 말하면 돈만이 자신의 생존을 지켜줄 것으로 믿고 "Ruf mir Y'oshke, ruf mir Moshke, / Aber gib mir die groschke."<sup>28)</sup>라고 입버릇처럼 되뇌이던 그의 아버지와의 유년시절의 삶과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여위고 주린 배를 움켜쥐고 전전했던 the East Side의 더러운 싸구려 아파트 생활과 인생의 실패자들, 갈 바를 잃은 사람들 사이에

26) Saul Bellow, *The Victim*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Inc., 1947), p. 68.

27) *Ibid.*, p. 248.

28) *Ibid.*, p. 102.



서 인생의 낙오자가 될 뻔 했던 남부 Broadway의 생활경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그는 이러한 세계관 때문에 극도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사회적인 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본능적 방어자세를 취하게 되며,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Leventhal 자신에게 공격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 된다. 그가 끊임없이 심리적으로 신경과민 상태에 놓여 있음도 외부세계에 대한 그의 피해의식과 그에 대한 방어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며, 심지어는 제수(弟嫂) Elena의 모친에 대하여도 그녀가 이탈리아계의 Catholic이기 때문에 만약 조카 Mickey가 죽게 되면, 그것은 유대인과 Catholic의 결혼에 대한 신(神)의 심판으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Elena의 모친은 유대인, 즉 나쁜 피, 더러운 피를 가진 사나이가 자기의 딸에게 두 아이를 낳게 했다고 여기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의식은 Jonathan Baumbach가 Leventhal을 "a victim of real and imaginary persecution"으로 보고 있듯이<sup>29)</sup> 대부분 세상을 보는 그의 눈, 즉 그의 세계관에 의하여 생겨난 것으로, 결국 그의 결정론적 세계관은 이 세계를 왜곡되게 보게 하는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중에 Mickey가 죽고나서 동생 Max가 돌아왔을 때 Elena의 모친은 인종이나 종교에 대하여 차별을 모르는 "a harmless old woman" 임이 밝혀지는 것만을 보아도 그의 세계관이 현실을 왜곡시켜 놓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R. R. Dutton이 "Asa's rationale is quite logical..."<sup>30)</sup>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Leventhal은 자연주의적이며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러한 세계가 그 자신에게 주어지는 위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방어하려는 사고방식의 인물이다. 세상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Leventhal은 매우 Joseph을 닮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Leventhal의 사고방식은 그와 Allbee와의 관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Leventhal은 결정론적 입장에서 백인들에 대하여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며, 그가 백인인 Allbee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해명하여 그 자신 때문에 실직을 당했으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Allbee의 주장이 터무니 없음을 밝히려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Leventhal의 이러한 이성적이냐 논리적인 사고방식도 그의 결정론적 세계관과 마찬가지로 그가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논리의 감옥"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 삶의 실상을 파악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Leventhal은 이러한 그의 세계관과 사고방식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De Quincey의 *The Pains of Opium*에서 발췌한 epigraph가 보여주고 있듯이, 애원하는 얼굴, 분노의 얼굴, 절망의 얼굴, 파도 속에 들끓는 몇 천, 몇 만, 몇 세대의 얼굴, 다시 말하면 Leventhal이 숨막히는 더위와 인파로 가득찬 공원에서 떠올리는 인간의 모습, 즉 대양의 신(the god of the sea)의 노여움으로 지옥문이 열리게 되자 안에 있는 영혼들이 들끓며 밖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으로<sup>31)</sup> 파악하게 되며,

29) Jonathan Baumbach, *The Landscape of Nightmare: Studies i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5), p. 51.

30) R. R. Dutton, *Saul Bellow* (Boston: Twayne Publishers, Inc., 1971), p. 39.

31) Saul Bellow, *The Victim*, pp. 163-64.

인간의 위대함을 설파하는 Allbee의 말을 이해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I (Allbee) guess you (Leventhal) wouldn't be familiar with the Catholic catechism where it asks, 'For whom was the world made?' Something along that line. And the answer is, 'For man.' 'For every man? Yes, for every last mother's son. Every man. Precious to God, if you please, and made for His greater glory and given the whole blessed earth. Like Adam. He called the beasts by their names and they obeyed him. I wish I could do that. Now that's clever. For everybody who repeats 'For man' it means 'For me.' 'The world was created for me, and I am absolutely required, not only now, but forever. And it's for me, forever.' Does that make sense?<sup>32)</sup>

또 Harkavy를 찾아갔을 때 Harkavy가 이 세상은 너무나 미묘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듯이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이 설사 결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 자체로서 고귀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Harkavy의 말도 이해하지 못한다. 더구나 Leventhal은 14번가의 한 cafeteria에서 Harkavy와 그의 친구들, Shifcart, Goldstone, Schlossberg 등이 모여서 한 여배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을 인간 이상의 존재로 이상화하는 것도, 또 인간을 인간 이하로 비하(卑下)시키는 것도 다 인간을 왜곡시킬 뿐이며,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서 위엄과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즉 인간을 이론(理論)의 틀을 사용하여 파악하기 보다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설파하는 Schlossberg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

"I'll tell you. It's bad to be less than human and it's bad to be more than human. What's more than human? Our friend-" he meant Leventhal, "was talking about it before. Caesar, if you remember, in the play wanted to be like a god. Can a god have diseases? So this is a sick man's idea of God. Does a statue have wax in its ears? Naturally not. It doesn't sweat, either, except maybe blood on holidays. If I can talk myself into it that I never sweat and make everybody else act as if it was true, maybe I can fix it up about dying, too. We only know what it is to die because some people die and, if we make ourselves different from them, maybe we don't have to? Less than human is the other side of it. I'll come to it. So here is the whole thing, then. Good acting is what is exactly human. And if you say I am a tough critic, you mean I have a high opinion of what is human. This is my whole idea. More than human, can you have any use for life? Less than human, you don't either.... 'If a human life is a great thing to me, it is a great thing. Do you know better? I'm entitled as much as you. And why be measly? Do you have to be? Is somebody holding you by the neck? Have dignity, you understand me? Choose dignity. Nobody knows though to turn it down.' Now to whom should this mean something if not

32) *Ibid.*, pp. 171-72.

to an actor? If he isn't for dignity, then I tell you there is a great mistake somewhere."<sup>33)</sup>

사실, Jonathan Baumbach가 "His [Leventhal's] confrontation with Allbee... operates for Leventhal as a spiritual shock treatment. Spiritually ill, Leventhal can achieve salvation only after he has come to terms with the lower depths of his being-his Allbee."<sup>34)</sup>라고 말하고 있듯이, Leventhal은 Allbee와의 사건을 통하여 그의 결정론적 논리의 세계는 어느 정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고, 삶의 실상을 어느 정도 직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할 수는 있다.<sup>35)</sup> 또 Allbee가 Leventhal의 alter ego가 되고 있다고 볼 때, Leventhal은 Allbee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의식하(意識下)에 감추어져 있는 자아의 실상을 어느 정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Leventhal은 그러한 현실과의 충돌의 결과 그 자신이 설정해 놓은 삶에 대한 관념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세워놓은 관념의 울타리 속에서 이 세상을 보고 있다. 그래서 Leventhal은 소설의 결말부에 이르러서도 Allbee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받아들여 삶은 이성적 논리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계는 거대하고 맹목적인 힘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어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이 세계의 움직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Allbee가 Leventhal의 아파트에서 가스를 켜 놓고 자살소동을 벌인 후, 2, 3년 후에 다시 극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데, 그 때 Leventhal은 Allbee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게 된다.

Leventhal pulled his hand away.

"What do you do out there, are you an actor?"

"An actor? No, I'm in radio. Advertising. It's a middle-sized job. So you see? I've made my peace with things as they are. I've gotten off the pony-you remember, I said that to you once? I'm on the train."

"A conductor?"

"Conductor, hell! I'm just a passenger." His laugh was short and faint. "Not even first class. I'm not the type that runs things. I never could be. I realized that long ago. I'm the type that comes to terms with whoever runs things. What do I care? The world wasn't

33) *Ibid.*, pp. 122-23.

34) Jonathan Baumbach, *The Landscape of Nightmare: Studies i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pp. 45-46.

35) Allbee는 그가 Leventhal을 현실과 유리된 그의 관념의 세계에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현실 속으로 끌어들이고 현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Bellow가 *Herzog*에서 말한 "reality instructor"가 되고 있다. Saul Bellow, *Herzog* (Penguin Books, 1964), p. 132.

made exactly for me. What am I going to do about it?"

"What?" Leventhal smiled at him.

"Approximately made for me will have to be good enough. All that stiffness of once upon a time, that's gone, that's gone."<sup>36)</sup>

?

그 때도 Leventhal은 "Wait a minute, what's your idea of who run things?"<sup>37)</sup>라고 되묻고 있다.

결국, Leventhal을 Joseph과 비교해서 말하자면, Joseph가 철저하게 "인간이상(more than human)"을 지향했던 인물임에 반하여, Leventhal은 그와 정반대로 인간을 인간이하(less than human)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인물은 철두철미 자신의 고정관념의 포로가 되고 있어서 삶의 실재(實在)를 보지 못하고 삶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인물들인 것이다.

#### IV

Bellow는 *Dangling Man*에서 이론적인 틀을 사용하여 관념적으로 삶을 파악하는 작업이 삶의 본질을 밝혀주기보다는 그것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또 *The Victim*에서는 하나의 경직된 틀을 갖고 있는 인물이 삶의 본질에 접근할 수도 없고, 삶의 본질을 이해할 수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본질에 접근하여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이성주의적 논리의 틀을 철저히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Bellow는 그러한 삶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의 이성주의적 사고의 틀을 초기 두 작품에서 일단 부정하고 나서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에서는 주인공 Augie를 내세워 Joseph가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삶에 대한 경험주의적 접근을 시도케 한다.

Augie가 삶에 대하여 경험주의적 입장에서 서 있음은 그가 삶에 대한 어떤 이론의 틀인 삶에 대한 고정관념, 즉 하나의 "ideal construction"을 갖고 있지 않은 인물로서, 삶의 실제적 경험을 통하여 삶의 실체를 파악하려 하고 있다는 데, 다시 말하면 그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 이를테면 Coblin 부부나, Renling 부인, 형 Simon, Thea, 그리고 Bastshaw 등의 "계획"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신의 "보다 나은 운명(better fate)," 아니 오히려 자신의 "독립적 운명(independent fate)"을 추구하고 인간이 고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편력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데서 분명해진다. 그러나 인간의 고귀성(nobility)의 탐구라는 면에서 본다면, 그는

36) Saul Bellow, *The Victim*, pp. 255-56.

37) *Ibid.*, p. 256.

Joseph와 매우 비슷하다. 다만 Joseph가 인간에 대한 "관념적 구성"을 통하여 인간의 고귀함을 실현하려 했다면, Augie는 그러한 "관념적 구성"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Augie의 모형은 바로 실제적 경험을 통한 인간의 이해와 그 고귀함의 가능성의 탐구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삶에 대한 이러한 경험주의적 탐구의 결과 Augie는 삶의 이상적 실상을 경험하기보다는 암울하고, 여러 가지 세력, 즉 돈이나 조직 그리고 죽음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이 세계를 보게 되며, 경험주의적 삶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계획"도 없이 또 타인의 "계획"에도 편입되지 않고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결국, 그는 경험적 삶의 탐구의 결과 그 자신은 소위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서 있음을 보게 된다. 즉 그는 인간을 이미 창조되어 있는 현실세계 속에 내팽개쳐진 존재로 파악하게 되며, 또 이 현실을 뒤덮고 있는 "어둠"은 인간에게 주어진 존재조건이며, 인간은 그러한 어둠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에 의하여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Augie의 모형, 그의 편력은 경험주의적이며 실존주의적인 삶의 탐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Augie는 그러한 삶의 탐구, 즉 선택에 의한 "보다 나은 운명"이나 "독립적 운명"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먼저, Augie는 그의 경험적 삶의 체험의 결과,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우리 자신이 창조하지 않은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이며,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의 여지가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의 폭은 몹시 제한되어 있으며, 또 그러한 삶의 태도는 삶에 대한 또 하나의 이론적 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Augie는 선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고 인간의 고귀함을 제약하고 있는 죽음이 우리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또 선택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또 다른 것들로서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과 "moha"<sup>38)</sup>가 인간의 삶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즉 인간의 죽음은 선택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또 인간은 조직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고, 물질적인 힘들, 돈이니 재물(財物)이니 하는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서는 삶의 영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Augie의 삶의 태도는 인간의 삶이란 선택에 의하여 자신의 독자적 운명을 창조하는 것이라는 실존주의적 태도에서 "인간의 삶이란 서로의 운명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태도로 전환하게 된다.

The thing I began to learn from her was of the utmost importance; namely, that everyone sees to it his fate is shared. Or tries to see to it. You may say that I should have known this before. I should have, and in a way I did, ... But the thick rind of world-organized resistance made that inevitable. Well, that too was a fate to be shared and another underlying bitterness.<sup>39)</sup>

38) Saul Bellow,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 (Greenwich, Conn.: Fawcett Publication, Inc., 1967), p. 467. "유한(the finite)"의 반대의 뜻을 갖는 Navajo 어(語)이자 Sanskrit어로서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뜻함.

39) *Ibid.*, p. 221.

이는 타인의 운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고는 삶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Augie가 깨닫게 되는 커다란 자각이다. 또 한편에서 보면, 이는 삶의 이론가인 Joseph가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And goodness is achieved not in a vacuum, but in the company of other men."<sup>40)</sup>이라는 자각과 같은 맥락에 서 있다.

그런데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에는 삶의 탐구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유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 또 한가지 있다. 그것은 Augie가 삶을 파악함에 있어서 경험주의적이며, 실존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삶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운명을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자각을 함으로써 삶에 대한 경험주의적 실존주의의 입장을 다소 극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실존주의적 태도이든 무엇이든 삶에 대한 모든 이론적 사고는 삶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이론적 틀을 초월하여 삶의 실상을 파악하고, 또 이론적 틀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게 된다는 데 있다.

Augie는 그의 탐구의 편력과정을 통하여 어둠과 죽음에 둘러싸여 있는 현실 속에서 순간순간 삶의 아름다운 순간을 직관적으로 포착해낸다.

The worst, for that day, had already happened to somebody else; one of the Aiello brothers had been found shot to death in his roadster. There was a big spread on it in the *Examiner*; we read it in the pier-bound trolley, and Nails thought he had played softball once against this Aiello. He was downcast. But it was till very early, right after dawn, when the slum distances of the morning streets were hollow, with only a white drop of sun on the brinks of buildings. When we walked down the pier to the *City of Saugatuck* and came out of the shed, suddenly the town gloom ended in a flaming blue teeter of fresh water, from the black shore-ends down into the golden whiteness eastward. The white-leaded decks had just been washed down and were sparkling with colors of water in a Gulf of Mexico warmth, and the gulls let the air currents carry them around... I stayed on deck in joy of the sun, the colors, up in the hay orders from the hatch where there were the horses of a yokel-circuit circus; it sent my blood happy to sit there in the blue and warm, with the slow air coming up against me from my feet in pretty much frazzled gym shoes, large-sized, lettered in india ink, up my jeans, and my head with plenty of hair to cushion it against the bulkhead.<sup>41)</sup>

This angry idea was momentary, however, I drank coffee and looked out into the brilliant first morning of the year. There was a Greek church in the next street of which the onion dome stood in the snow-polished and purified blue, cross and crown together, the united

40) Saul Bellow, *Dangling Man*, p. 75.

41) Saul Bellow,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 p. 93.

powers of earth and heaven, snow in all the clefts, a snow like the sand of sugar. I passed over the church too and rested only on the great profound blue. The days have not changed, though the times have. The sailors who first saw America, that sweet sight, where the belly of the ocean had brought them, didn't see more beautiful color than this.<sup>42)</sup>

다시 말하면, Augie가 경험적으로 파악한 현실세계는 그가 "But the reality situation is what I have described. A billion souls boiling with anger at a doom of insignificance."<sup>43)</sup>라고 말하고 있듯이 비관적 결정론에 사로잡힌 Leventhal의 눈에 비친 세계와 동일한 세계지만 이러한 세계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이론적 또는 경험적 접근을 허락치 않고 있는 아름다움을 Augie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Augie는 Joseph처럼 인간의 고귀함을 갈구하고 있는 인물이지만, 그는 Joseph와는 정반대로 삶을 파악하고 고귀함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론적 틀은 삶과 현실을 밝혀주기 보다는 Basteshaw의 이론(理論)의 경우처럼 하나의 "mad idea"<sup>44)</sup>로서 삶과 현실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며, 인간의 모든 문제를 초월케 해주는 사랑이란 고귀한 속성이 인간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Augie는 인간을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로 파악하여 신(神)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인간은 "선택"에 의하여 생겨나는 문제들이나, 선택의 가능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는 "moha"나 조직에 의하여 생겨나는 문제들이나, 또 선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사랑에 의하여 초월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Things done by man which overshadow us. And this is true also of meat on the table, heat in the pipes, print on the paper, sounds in the air, so that all matters are alike, of the same weight, of the same rank, the caldron of God's wrath on page one and Wieboldt's sale on page two. It is all external and the same. Well, then what makes your existence necessary, as it should be? These technical achievements which try to make you exist in their way?"

Kayo said, not much surprised by this, "What you are talking about is *moha*—a Navajo word, and also Sanskrit, meaning opposition of the finite. It is the Bronx cheer of the conditioning forces. Love is the only answer to *moha*, being infinite."<sup>45)</sup>

At any time life can come together again and man be regenerated, and doesn't have to be god or public servant like Osiris who gets torn apart annually for the sake of the common prosperity, but the man himself, finite and taped as he is, can still come where the axial

42) *Ibid.*, pp. 297-98.

43) *Ibid.*, p. 523.

44) *Ibid.*, p. 532.

45) *Ibid.*, p. 467.

lines are. He will be brought into focus. He will live with true joy. Even his pains will be joy if they are true, even his helplessness will not take away his power, even wandering will not take him away from himself, even the big social jokes and hoaxes need not make him ridiculous, even disappointment after disappointment need not take away his love. Death will not be terrible to him if life is not. The embrace of other true people will take away his dread of fast change and short life. And this is not imaginary stuff, Clem, because I bring my entire life to the test."<sup>46)</sup>

그래서 Clem Tambo가 말하고 있듯이 그는 "servant of love"<sup>47)</sup>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랑은 Augie가 "When striving stops, there they are as a gift. I was lying on the couch here before and they suddenly went quivering right straight through me. True, love, peace, bounty, usefulness, harmony!"<sup>48)</sup>라고 말하고 있고, 또 "When striving stops, the truth comes as a gift—bounty, harmony, love, and so forth."<sup>49)</sup>라고 말하고 있듯이, 사랑이란 진리의 또 다른 한 모습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론의 틀에 박힌 "계획"의 실천을 중지했을 때 나타나는 진실의 또 다른 모습 중의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Augie가 도달하게 되는 삶에 대한 인식은 Schlossberg와 같은 것이 된다. 즉 인간과 삶은 표면적으로는 혼란스러움과 추악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다만, 그러한 실재는 밖으로 언제나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또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파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적판단(知的判斷)을 중지한 상태에서 삶을 직시하게 됨으로써만 순간순간 드러나게 되는 것이 된다.

## V

삶의 탐구문제와 관련지워 볼 때 *Seize the Day*에서 Bellow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는 서로 대립되어 있는 두 개의 삶에 대한 고착관념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다. 더구나 그 두개의 고착관념 중의 하나가 사회의 지배적 관념일 경우, 그와 대립되는 관념을 갖고 있는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Bellow는 *Dangling Man*과 *The Victim*에서 어떤 고착관념, 즉 그 관념이 인간을 인간이상의 고귀한 존재로 파악하려는 것이건 아니면 Leventhal이 인간의 생존양식을 동물적 생존경쟁의 양식으로 파악하려 했듯이 인간을 인간

46) *Ibid.*, p. 472.

47) *Ibid.*, p. 449.

48) *Ibid.*, p. 472.

49) *Ibid.*, p. 533.



이하의 것으로 간주하려는 시도이전 간에, 그러한 고착관념은 인간의 본질적 실상을 드러내기 보다는 일그러뜨리게 됨을 보여주고 나서 *Seize the Day*에서는 삶에 대한 그러한 두개의 대립적 이론들의 충돌과 그 결과를 그려내고 있다.

*Seize the Day*에서 두 개의 대립되는 삶에 대한 고착관념은 사회의 지배적 관념을 대변하고 있는 Dr. Adler의 세계관과 이에 대립되어 있는 Wilhelm의 이상주의적 세계관이다. 먼저, 사회의 지배적 관념으로 나타나는 Adler의 세계관을 보면 그는 선(善)의 척도가 바로 재화, 즉 경제력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그는 경제력만이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하여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주고, 또 인간의 삶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며, 인간의 가치와 능력도 바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또한 Adler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그 세계관도 매우 분석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되고 있고 체계화된 세계관이며 그 실천과정과 방법도 매우 냉철하고 이성적인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그의 세계는 "moha"가 지배하는 사회를 그의 이성적 능력에 의지하여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조직화한 세계라 할 수 있다. 이 Adler의 세계가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파악된 세계이며, 또 그 세계관은 그가 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념의 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Joseph의 "ideal construction"과 동일하나, 그 세계가 인간의 삶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Leventhal이 갖고 있었던 자연주의적 결정론의 세계관과 같은 맥락에서 있으며, 또한 Leventhal의 세계관처럼 Schlossberg가 말한 인간이하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Adler의 세계관과 대립되어 있는 Wilhelm의 세계관을 보면, 그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재화가 아니라 자유와 인간의 따뜻한 감정인 사랑이라 여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애정과 자유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고 인간을 고귀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으며, 인간의 가치는 특히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여긴다. 그런데 Wilhelm의 이 이상주의적 가치관은 이성적이며 논리적으로 체계화되거나 파악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귀함을 추구하려는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그의 성격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그의 노력도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합리적인 행동과 방법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의 세계는 그의 감성(感性)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파악되고 형성된 세계이다. 이 Wilhelm의 세계는 매우 이상주의적 세계를 지향하는 관념의 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Joseph의 세계관과 유사하며, 이 두 사람의 세계관은 그 형성방법과 과정이 각기 다르나 모두가 다 Schlossberg가 말한 "인간이상"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러면 이 두 세계의 대립의 결과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물론,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대립적 두 세계의 충돌의 결과 인간의 정신적인 것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상주의적 Wilhelm의 세계가 Adler의 화폐지향적 물질만능주의 세계관에 의하여 여지없이 파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은 현대의 획일화된 산업대중사회 속의 일개인의 존재양상, 즉 일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은 아무리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 하더라도 저열(低劣)한 지배적 사회의 가치관에 대항하여 그

고귀함을 주장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러니한 결과는 Bellow 소설의 삶의 탐구라는 주제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에 의하여 파괴되는 Wilhelm의 세계는 그것이 제아무리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세계는 인간의 삶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역시 관념에 의하여 창조된 세계이며, 결국 지배적 사회의 가치관에 의하여 파악된 Adler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결국 왜곡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Bellow에 있어서 Adler와 Wilhelm의 삶에 대한 접근방법은 모두가 다 지양(止揚)되어야 할 삶에 대한 접근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Wilhelm은 Adler를 통한 사회와의 대립을 통하여 삶의 실상을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Wilhelm은 Tamkin을 통하여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또한 순간 한 순간 Augie가 삶과의 접촉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사랑과 조화와 관용"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의 진실을 간파할 수 있었듯이, Wilhelm도 그 자신과 이웃, 그리고 이 우주를 연결시켜 주고 또 그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따뜻한 사랑의 감정과 아름다움 삶의 진실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The idea of this larger body had been planted in him a few days ago beneath Times Square, when he had gone downtown to pick up tickets for the baseball game on Saturday (a double-header at the Polo Grounds). He was going through an underground corridor, a place he had always hated and hated more than ever now. On the walls between the advertisements were words in chalk: 'Sin No More', and 'Do Not Eat the Pig', he had particularly noticed. And in the dark tunnel, in the haste, heat, and darkness which disfigure and make freaks and fragments of nose and eyes and teeth, all of a sudden, unsought, a general love for all these imperfect and lurid-looking people burst out in Wilhelm's breast. He loved them. One and all, he passionately loved them. They were his brothers and his sisters. He was imperfect and disfigured himself, but what difference did that make if he was united with them by this blaze of love? And as he walked he began to say, 'Oh, my brothers—my brothers and my sisters,' blessing them all as well as himself....

On that very same afternoon he didn't hold so high an opinion of the same onrush of loving kindness. What did it come to? As they had the capacity and must use it once in a while, people were bound to have such involuntary feelings. It was only another one of those subway things. Like having a hard-on at random. But today, his day of reckoning, he consulted his memory again and thought, I must go back to that. That's the right clue and may do me the most good. Something very big. Truth, like.<sup>50)</sup>

사실, Bellow는 삶의 실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성에 의한 관념적 이론화의 방법을

50) Saul Bellow, *Seize the Day* (Penguin Books, 1956), pp. 90-91.

초기 두편의 소설에서 부정하고 나서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에서는 Augie를 통하여 직관에 의한 초월주의적 인식방법을 조금씩 제시하기 시작했었다. 그런데 *Seize the Day*에 와서는 그러한 초월주의적이며,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적(mystical)이기까지한 인식의 길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Tamkin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현실의 실재를 보지 못하고 있는 Wilhelm 앞에 인간에게 진리를 깨우치는 Hindu monk처럼 나타나서 최면효과와 충격요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Wilhelm으로 하여금 자신이 관념에 의하여 만들어 놓은 세계, 즉 "recreated reality"에서 방황하지 말고 뛰쳐 나와 현재 이 순간을 포착하도록 하며, 자신의 위대함과 삶의 실재의 아름다움을 깨닫도록 설파한다.

'With me.' said Dr Tamkin, 'I am at my most efficient when I don't need the fee. When I only love. Without a financial reward. I remove myself from the social influence. Especially money. The spiritual compensation is what I look for. Bringing people into the here-and-now. The real universe. That's the present moment. The past is no good to us. The future is full of anxiety. Only the present is real—the here-and-now. Seize the day.'<sup>51)</sup>

If thee thyself couldst only see  
Thy greatness that is and yet to be,  
Thou would feel joy-beauty-what ecstasy.  
They are at thy feet, earth-moon-sea, the trinity.

.....

Look then right before thee.  
Open thine eyes and see.  
At the foot of Mt Serenity  
Is thy cradle to eternity.<sup>52)</sup>

'Nature only knows one thing, and that's the present. Present, present, eternal present, like a big, huge, giant wave-colossal, bright and beautiful, full of life and death, climbing into the sky, standing in the seas. You must go along with the actual, the Here-and-Now, the glory -'<sup>53)</sup>

51) *Ibid.*, pp. 71-72.

52) *Ibid.*, pp. 80-81.

53) *Ibid.*, p. 96.

Wilhelm은 사기찬처럼 보이는 돌팔이 정신과 의사에 의하여 19세기의 낭만주의적 정신세계 속에서 현실세계로 인도되며, 외관에 의하여 감추어져 있는 자신과 이 세계의 아름다운 실재를 한 순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하면, Bellow는 *Seize the Day*에서 삶의 실재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서구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지식의 전통을 일단 다시 한번 부정하면서 그러한 지식의 전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초월적 능력과 그 세계를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에서 보다는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 VI

삶의 탐구라는 면에서 *Seize the Day*에 이르기까지 등장한 주인공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첫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Joseph이나 Augie처럼 의식적으로 삶의 실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둘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Leventhal이나 Wilhelm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삶의 문제를 야기하여 그 문제에 매달리게 되는 사람들이다. *Henderson the Rain King*의 주인공 Henderson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어느 인물보다도 삶의 문제에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혀 있고, 또 가장 의식적으로 삶의 실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광기(狂氣)에 가까운 상태에 빠져드는 인물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삶의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Henderson이 중요하게 되는 것은, 삶에 대한 초월주의적 접근과 이해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죽음의 문제가 이미 여러 작품에서 제기되어 검토되어 왔음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Henderson the Rain King*에 이르러서는 삶에 대한 초월주의적 접근이 mysticism의 관점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H. M. Harper Jr.가 지적하고 있듯이 문제의 핵심이 삶에서 죽음으로 옮겨가고 있다<sup>54)</sup>는 데 있다.

Henderson의 출발점은 Augie의 출발점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경험주의적 입장에서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짚어지고 아프리카로 떠날 때는 Joseph나 Leventhal 그리고 Wilhelm과는 달리 삶과 죽음에 대한 논리적 이론의 틀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가 마치 Augie처럼 아프리카에서 삶과 죽음의 여러 가지 체험을 겪음으로써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결론을 얻어내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K. M. Opdahl이 Bellow 인물들의 체험은 "transcendental or religious experience"이라고 지적하고 있듯이<sup>55)</sup> 특히 Henderson이 아프리카 여행을 통하여 겪게 되는 체험은 매우 초월적이고 종교적이며 오히려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Henderson이 아프리카로 떠났을 때의 정신자세도 어떤 종교의 구도자적(求道者的) 자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한

54) H. M. Harper Jr., *Desperate Faith*, p. 39.

55) K. M. Opdahl, *The Novels of Saul Bellow*, p. 22.

깨달음은 밀교적(密敎的) 형식의 체험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Henderson의 아프리카 여행은 삶과 죽음에 대한 많은 체험을 통하여 그것들에 대한 어떤 결론을 얻어내거나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깨달음을 얻은 어떤 도인(道人)과 같은 존재의 도움으로, 마치 신비주의 종교인들이 깨달음을 얻듯이, 그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려 하고 있으며, 또 그의 깨달음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고 있다 할 수 있다.

Henderson의 아프리카 여행이 갖고 있는 신비주의적 요소는 그가 안내인 Romilayu와 함께 Itelo를 만났을 때부터 분명해진다. 그는 Itelo를 만나게 되자, 그 자신의 본래의 여행 목적이 떠올라서 Itelo가 정말 인생의 크고 깊은 면을 알고 있는 작자(作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얼굴을 자세히 훑어보기 시작한다.<sup>56)</sup> 그런가 하면, Arnewi 족의 여왕 Willatale을 알현(謁見)했을 때도 자신을 구도(求道)에 나선 사람이라고 "Your Highness, I am really kind of on a quest."<sup>57)</sup>라고 소개하고 그녀를 인생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손바닥을 펴보이면서 이 세상의 밀의(密意, mystery)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그는 불교도의 대오(大悟)의 순간과도 같이 그의 정신의 잠(the spirit sleep)이 깨뜨려질 해방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sup>58)</sup>

Willatale이 Henderson에게 삶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과정은 더욱 밀교적(密敎的)이다. 이는 선지식(先智識)이 구도자(求道者)에게 깨우침을 주는 과정과 흡사하며, 그 가르침의 내용도 매우 종교적이고,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성격이 뚜렷하다. 계시의 순간을 기대하며 일어났던 Henderson의 마음의 설레임이 차분히 가라앉게 되자, 그녀는 신문답(禪問答)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Henderson에게 가르침을 주게 되고, Henderson은 그가 마흔 여섯인가 일곱이었던 어느날 갑자기 생겨나서 된 다섯이 될 때까지 그를 몰아세우고 있는 "I want, I want."라는 충동적 절규가 어디에서 왜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된다.

'Send-sations.' I nodded, and Willatale proceeded. 'Says± you are very sore, oh sir! Mistah Henderson. You heart is barking.' 'That's correct,' I said, 'with all three heads, like Cerberus the watch dog. But why is it barking?'... 'Freneyzy,' he said. 'Yes, yes, I'll confirm that,' I said. 'The woman has a real gift.' And I encouraged her. 'Tell me, tell me, Queen Willatale! I want the truth. I don't want you to spare me.' 'Suffah,' said Itelo...<sup>59)</sup>

56) Saul Bellow, *Henderson the Rain King* (Penguin Books, 1959), p. 53.

57) *Ibid.*, p. 63.

58) *Ibid.*, p. 75 ff.

59) *Ibid.*, p. 79.

'Grun-tu-molani,' the old queen said.

'What's that? What does she say?'

'Say, you want to live. Grun-tu-molani Man want to live.'

'Yes, yes, yes ! Molani. Me molani. She sees that? God will reward her, tell her, for saying it to me. I'll reward her myself. I'll annihilate and blast those frogs clear out of that cistern, skyhigh, they'll wish they had never come down from the mountains to bother you. Not only I molani for myself, but for everybody. I could not bear how sad things have become in the world and so I set out because of this molani. Grun-tu-molani, old lady-old queen. Grun-tu-molani, everybody !' I raised my helmet to all the family and members of the court, 'Grun-tu-molani. God does not shoot dice with our souls, and therefore grun-tu-molani.'<sup>60)</sup>

Henderson은 마침내 삶 의 진실을 깨달게 된다. 그는 그 깨달음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Laughing, I rushed out and into this same pink colour, far from the ordinary colour of evening. I saw it on the floury side of the mill as the water dropped in the wheel. A clear thin red rose in the sky.

I never expected to see such a colour in Africa, I swear. And I was worried lest it pass before I could get everything I should out of it. So I put my face, my nose, to the surface of this wall. I pressed my nose to it as though it were a precious rose, and knelt there on those old knees, lined and grieved-looking; like carrots; and I inhaled, I snuckered through my nose and caressed the wall with my cheek. My soul was in quite a condition, but not hectically excited; it was a state as mild as the colour itself. I said to myself, 'I knew that this place was of old.' Meaning, I had sensed from the first that I might find things here which were of old, which I saw when I was still innocent and have longed for ever since, for all my life—and without which I could not make it. My spirit was not sleeping then, I can tell you, but was saying, Oh, ho, ho, ho, ho, ho, ho !

Gradually the light changed, as it was bound to do, but at least I had seen it again, like the fringe of the Nirvana, and I let it go without a struggle, hoping it would come again before another fifty years had passed. As otherwise I would be condemned to die a mere old rioter or dumbsock with three million dollars, a slave to low-grade fear and turbulence.

So now when I turned my thoughts to the relief of the Arnewi, I was a different person, or thought I was, I had passed through something, a vital experience, It was exactly the opposite at Banyules-sur-Mer with the octopus in the tank.<sup>61)</sup>

Henderson이 Willatale을 통한 깨달음은 "grun-tu-molani"라는 말이 "죽음이 아니라 삶을

60) *Ibid.*, pp. 81-82.

61) *Ibid.*, pp. 96-97.

원한다."라는 아프리카의 토어(土語)이듯이,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삶을 원하며, 그 삶은 그 자체로서 아름답다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바로 Schlossberg가 말한 "인간이상"도 "인간이하"도 아닌 인간 존재 그 자체, 다시 말하면 만물의 존재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Henderson의 아프리카에서의 두 번째 체험인 Wariri족의 왕 Dahfu와의 체험은 Willatale과의 체험보다 더욱 신비주의적이고 밀교적이다. Henderson은 이 두 번째 Dahfu와의 밀교적 체험을 통하여 그를 끊임없이 괴롭혀 온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Henderson이 Dahfu와의 밀교적 체험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의식의 노예로서 이 현상계(現象界)는 인간의식의 소산(所産)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의 소산인이 현상계는 계속 변화하는 "되어감(becoming)"의 세계이며, 인간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는 본연의 세계가 "되어 있음(being)"의 세계가 된다. 이를 부연(敷衍)하면, "되어감"의 세계는 "인위적으로 만든 상태(the states that are made"<sup>62)</sup>)이며, "되어 있음"의 세계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상태(the states that are given)"<sup>63)</sup>가 되며, 따라서 인간들도 "되어감의 사람(Becomer)"과 "있음의 사람(Be-er)으로 이루어져 있다. "되어감의 사람"은 언제나 불안한 상태에 있고, 운도 좋지 않으며, "되어 있음의 사람"에 대하여 언제나 설명과 변명을 되풀이 해야하며, 미래의 어느 한 순간을 위하여 현재를 참고 견디는 인물이다. 이와는 반대로 "되어 있음의 인물"은 언제나 휴식을 취하며,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안전상태에 있고 평온하며, 영혼의 잠에서 깨어난 사람으로서 죽음마저도 초탈(超脫)한 사람이다.<sup>64)</sup> 이 깨달음은 Henderson의 말을 빌면, 어떤 것도 보이는 바 그대로가 그 참 모습일 수 없다(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anyway)<sup>65)</sup>는 것이며, "이 세계는 곧 정신이며(the world is a mind)", 그래서 "여행은 정신의 여행이고(Travel is mental travel)", "우리가 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적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What we call reality is nothing but pedentry)<sup>66)</sup>는 것이다.

이와 함께 Dahfu는 Henderson에게 인간은 의식의 노예이긴 하지만 "상상력은 자연의 어떤 힘이며, 상상력은 현실로 변화되며, 또 그것은 지탱해주고 변화시켜 주고, 불완전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서 인간이 상상하는 것, 그것으로써 인간은 스스로를 변모시켜 나갈 수 있음"<sup>67)</sup>을 가르친다. 이러한 가르침은 Dahfu가 계속하여 Henderson에게 가르치는 "The spirit of the person in a

62) *Ibid.*, p. 245.

63) *Ibid.*, p. 245.

64) *Ibid.*, p. 150. H. M. Harper Jr., *Desperate Faith* p. 47.

65) Saul Bellow, *Henderson the Rain King* p. 151.

66) *Ibid.*, p. 175.

67) *Ibid.*, pp. 253-54.

sense is the author of his body"<sup>68</sup>)라는 가르침이나, "...nature might be a mentality"<sup>69</sup>)라는 가르침, 그리고 "...the mind of the human may associate with the All-Intelligent to perform certain work. By Imagination."<sup>70</sup>)라는 가르침과 동일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Dahfu의 최후의 가르침은 상상력과 인간정신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시켜 줄 수 있으므로, 우리는 "Be-er"와 하나가 됨으로써 "정신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고, Be-er의 영향으로, Be-er의 고귀함을 받아들여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Dahfu는 이러한 가르침을 Henderson의 죽음의 문제에 적용해 보이고 있다. Dahfu는 Henderson이 죽음의 공포에서 도피하여 아프리카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Henderson이 Mummah를 들어올려 "비의 왕" Sungo가 되자 그에게 Willatale에게서 "grun-tu-molani"를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되고 그 이상의 것에 대한 앎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Henderson에게 Be-er의 자질을 갖고 있고 고귀함을 갖고 있으며 삶과 죽음의 상징인 사자(獅子) Atti를 모방하고 Atti와 하나가 되도록 함으로써 Atti의 고귀함을 받아들여 Henderson을 변화하게 하고, Atti를 통하여 죽음의 실상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정신의 잠"에서 깨어나 죽음의 실상(實相)을 깨닫고 죽음을 극복하게 한다. 요컨대, Dahfu의 가르침과 Henderson의 죽음의 극복이라는 문제를 연결시켜 볼 때 Henderson이 Atti와 하나가 됨을 통하여 깨우치고 있는 것은 죽음도 삶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식작용의 소산(所産)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 Henderson의 이 아프리카 여행을 통한 체험은 결국 *Dangling Man*에서 *Seize the Day*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온 20세기의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지식체계를 철저히 비판하고 이 대신에 신비주의적 입장을 천명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결과는 우선 Henderson이 돼지왕초가 되어 삶의 문제 때문에 무의미하고도 "눈물과 광증(狂症)"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도 철학자였던 그의 첫 부인 Frances는 Henderson의 삶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를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는 데서도 나타나며, Henderson이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지식을 사용하여 제조한 폭발물로 저수지에 들끓고 있는 개구리를 박멸하여 Arnewi족의 물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을 때 그 결과는 개구리를 퇴치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수담을 폭발시켜 생명의 근원인 물을 흘러 없애버리게 되는 데서도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에 의한 지식은 단지 "되어감(becoming)"에 대한 지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적 유희"에 지나지 않는 지식은 현상(現象)의 문제를 검토하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나 본질의 문제를 검토하는 데는 큰 힘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된다. 그래서 Henderson은

68) *Ibid.*, p. 222.69) *Ibid.*, p. 251.70) *Ibid.*, p. 251.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지식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And its the destiny of my generation of Americans to go out in the world and try to find the wisdom of life."<sup>71)</sup>라고 외치고 있다.

## VII

*Herzog*에서도 소설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삶의 탐구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소설의 주인공 Herzog의 행동은 Joseph나 Augie나 Henderson처럼 "삶이 무엇인가"를 해명하려는 강한 욕구,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과 삶에 대한 완전 종합명제를 완성시키려는 절박한 욕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으며, 소설의 중심상황도 그러한 욕구가 좌절에 이르게 됨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욕구좌절의 상황이며, 또 이 소설은 그러한 좌절의 상황을 통하여 Herzog가 인간과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해답을 얻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H. M. Harper Jr.가 지적하고 있기도 하지만

To the close reader of Bellow's earlier work, *Herzog* (1964) is not a particularly surprising book—certainly not in the sense that *Augie* must have been surprising to readers of *Dangling Man* and *The Victim*. *Herzog* is written in the freewheeling style which he unveiled in *Augie* and developed in *Henderson*. Philosophically too, *Herzog* represents an amplification of Bellow's earlier ideas rather than a radical new departure.<sup>72)</sup>

*Herzog*는 삶의 탐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 *Herzog*는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보다는 *Dangling Man*에서 *Henderson the Rain King*에 이르기까지 다루어 온 여러 가지 삶의 탐구문제를 종합하고 결론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Herzog*에서는 먼저 *Dangling Man*의 중심문제였고 계속하여 작품 속에서 다루어졌던 삶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로 표방되는 이성주의적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서,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에서부터 제기되고 *Henderson the Rain King*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삶에 대한 초월주의적이며 신비주의적인 접근방법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천명하고 있다 할 수 있다.

*Dangling Man*에서부터 제기된 삶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의 이성주의적 태도가 갖는 한계를 *Herzog*에서 먼저 검토하고 있음은 계몽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이상주의적 관념체계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인간과 삶을 해명하려 했던 Joseph의 분신(分身)과도 같은 인물, 즉 철학박사 학위를

71) *Ibid.*, p. 258.

72) H. M. Harper, *Desperate Faith*, p. 51.

소지하고 있는 유능한 대학교수이자, *Romanticism and Christianity*를 저술하는 등 전공분야에서도 훌륭하고 중요한 업적을 쌓고 있는 전도유망한 학자로서, 자신의 이론에 따라 역사의 흐름과 인간을 새로이 설명하려는 야심찬 욕구를 갖고 있는 Herzog를 내세워, *Dangling Man*에서 일단 검토되었던 문제, 즉 이성주의적 논리에 의한 인간과 삶에 대한 관념적 해석은 인간과 삶을 밝혀주기보다는 오히려 왜곡시킴, 다시 말하면 이성주의적 관념체계에 의한 인간과 삶의 해명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데서도 확연하다.

*Dangling Man* 이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인간과 삶에 대한 이성주의적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주제가 Herzog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Herzog의 욕구좌절과 그 좌절 속에서 인간과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드러나게 된다. 우선, Herzog의 욕구를 그 자신의 표현을 빌어서 설명하면, 그의 야심에 찬 욕구는 de Tocqueville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조건의 평등화에 관한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발전, 즉 민주주의의 진보를 전제로 용납하면서 20세기의 모든 혁명이나 대중적 동요와 소란을 해명하려는 것이었으며,<sup>73)</sup> 또 보편적인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자아의 특성에 대한 낭만주의의 최종적 오류를 지적·전복하고, 서구사회 고래(古來)의 Faust적인 이데올로기를 수정하고, 무(無)의 사회적인 의미를 검토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인간조건에 관한 새로운 국면을 관찰하려는 것이었는데,<sup>74)</sup> 이를 한 마디로 말하면 역사의 발전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해명을 하려는 것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야심에 찬 욕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Herzog의 연구는 "Romantic Moralism"에 관한 장(章)을 지나서 "Rousseau, Kant, and Hegel"이라는 장에 이르자 꼭 막히게 되어 꼼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10년전까지만 해도 Hegel의 "consensus"에 대한 이론을 잘 이해했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무엇인가 잘못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더구나 그러한 난관 속에서 그는 부인 Madeleine과 어린 딸 June까지도 그가 믿고 그렇게 열심히 뒤를 돌보아주었던 Gersbach에게 빼앗기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그의 욕구는 완전히 좌절에 봉착하고 만다. Herzog와 Madeleine, 그리고 Gersbach간의 삼각관계가 Herzog의 욕구를 완전히 좌절에 이르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삼각관계가 Herzog로 하여금 그가 갖고 있는 이론으로는 현대 세계와 인간조건에 대한 해명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세계와 인간전체의 문제를 떠나서 자신의 부인과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조차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음을 절감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Massachusetts Ludenville의 한 고옥(古屋)에 파묻혀 제정신이 아닌 듯이 Conte, Heidegger, Alex de Tocqueville, Nietzsche, Whitehead, John Dewey, Hegel, Kant, Spinoza, Freud 등 수많은 사상가와 정치가, 군인, 사회지도자, 자연과학자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발송되지 않는 편지를 계속, 씀으로써 자신의 사상적 체계와 함께 서구사상 전체를 인간과 삶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게 된다.

73) Saul Bellow, *Herzog*, p. 12.

74) *Ibid.*, p. 45.

이 검토의 결과 Herzog가 이르게 되는 결론은 우리들은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인간과 삶의 실재를 이성에 의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이름도 모르는 죽은 사람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Believing that reason can make steady progress from disorder to harmony and that the conquest of chaos need not be begun anew every day. How I wish it! How I wish it were so! How Moses prayed for this!*<sup>75)</sup>

또 Hobbes와 Freud를 공박하면서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과학사상을 비판한다.

*Man has a nature, but what is it? Those who have confidently described it, Hobbes, Freud, et cetera, by telling us what we are 'intrinsically', are not our greatest benefactors. This is true also for Rousseau. I sympathize with Hulme's attack on the introduction by the Romantics of Perfection into human things, but do not like his narrow repressiveness, either. Modern science, least bothered with the definition of human nature, knowing only the activity of investigation, achieves its profoundest results through anonymity, recognizing only the brilliant functioning of intellect.*<sup>76)</sup>

그런가하면 그는 Hegel을 비판하고

*That man is free whose condition is simple, truthfull-real. To be free is to be released from historical limitation. On the other hand, G. W. F. Hegel (1770-1831) understood the essence of human life to be derived from history. History, memory-that is what makes us human, that, and our knowledge of death": 'by man came death'. For knowledge of death makes us wish to extend our lives at the expense of others. And this is the root of the struggle for power. But that's all wrong! thought Herzog, not without humour in his despair.*<sup>77)</sup>

Nitzsche의 초인사상도 기독교사상과 마찬가지로 도착(倒錯)된 사상의 하나라고 비판한다.

*Humankind lives mainly upon perverted ideas. Perverted, your ideas are no better than those of the Christianity you condemn. Any philosopher who wants to keep his contact with mankind should pervert his own system in advance to see*

75) *Ibid.*, p. 189.

76) *Ibid.*, p. 135.

77) *Ibid.*, p. 169.

*how it will really look a few decades after adoption. I send you greetings from this mere border of grassy temporal light, and wish you happiness, wherever you are. Yours, under the veil of Maya, M. E. H.<sup>78)</sup>*

또 그는 이성적 절대 추구는 결국 reality의 추구가 못되고, reality에 대한 형이상학적 탐색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And these explanations are unbearable, but they have to be made.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passionate search for absolute truth stopped so that mankind might transform the world. Something practical was done with thought. The mental became also the real. Relief from the pursuit of absolutes made life pleasant. Only a small class of fanatical intellectuals, professionals, still chased after these absolutes. But our revolutions, including nuclear terror, return the metaphysical dimension to us.<sup>79)</sup>*

그래서 그는 그의 친구 Edvig의 "...neuroses might be graded by inability to tolerate ambiguous situations."<sup>80)</sup>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는 이성적 절대성을 추구하려는 현대인의 지적 독선(獨善)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Herzog는 인간과 삶을 하나의 이론으로 명쾌하게 해석하려 했던 시도가 끝내 실패로 끝나게 되고, 더구나 딸 June까지 Gersbach에게 빼앗기게 된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그러한 상황은 오히려 그에게 reality를 새로운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됨으로써 새로운 해결의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왜냐하면, 우선 그러한 좌절은 그에게 자신의 사상체계는 물론, 서구의 이성주의적 사상체계를 철저히 재검토하여 그러한 사상체계의 한계와 모순을 의식케 하고 새로운 인식체계에 눈을 돌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러한 좌절의 상황이 그로 하여금 그가 칩거(蟄居)하고 있는 사상체계라는 관념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현실의 실상과 접촉하고 직시하도록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한가지 든다면, 그가 "현실교사(reality instructor)"라고 부른 바 있는 "현실의 교훈(the lesson of the Real)"으로 가르치고 처벌하는 인물들, 즉 변호사 Himmelstein, Gersbach, Madeleine 등과 같은 인물들은,<sup>81)</sup> 마치 Allbee가 Leventhal의 고정관념을 뒤흔들어 놓았듯이, Herzog의 관념세계를 깨뜨려 버리고 그를 현실 속으로 내동댕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때야 비로소 현실과 맞서게 되고 관념에 의해서 해석된 현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접하게 된다. 셋째는 그의 좌절과 고립의 상황이 그에게 인간과 특히 자연을

78) *Ibid.*, pp. 326-27.

79) *Ibid.*, p. 330.

80) *Ibid.*, p. 311.

81) *Ibid.*, p. 132.

관념의 매개없이 접하게 하고 그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체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It was the peak of summer in the Berkshires. Herzog was alone in the big old house. Normally particular about food, he now ate Silvercup bread from the paper package, beans from the can and American cheese. Now and then he picked raspberries in the overgrown garden, lifting up the thorny canes with absentminded caution. As for sleep, he slept on a mattress without sheets—it was his abandoned marriage bed—or in the hammock, covered by his coat. Tall bearded grass and locust and maple seedlings surrounded him in the yard. When he opened his eyes in the night, the stars were near like spiritual bodies. Fires, of course; gases—minerals, heat, atoms, but eloquent at five in the morning to a man lying in a hammock, wrapped in his overcoat.<sup>82)</sup>

All the while, one corner of his mind remained open to the external world. He heard the crows in the morning. Their harsh call was delicious. He heard the thrushes at dusk. At night there was a barn owl. When he walked in the garden, excited by a mental letter, he saw roses winding about the rain spout; or mulberries—birds gorging in the mulberry tree. The days were hot, the evenings flushed and dusty. He looked keenly at everything but he felt half blind.<sup>83)</sup>

그는 이러한 자연과의 접촉을 통하여 이성적 논리로 파악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가 존재함을 의식하게 된다. 넷째는 Herzog의 이러한 상황이 그로 하여금 이성적 논리를 초월해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이 그 자신의 내부 깊숙한 곳에서 흐르고 있음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그는 아무리 부정하려고 애를 써봐도 그 자신이 이른바 "potato love"<sup>84)</sup>를 갖고 있는 "a loving brute—a subtle, spoiled, loving man"임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What good, what lasting good is there in me? Is there nothing else between birth and death but what I can get out of this perversity—only a favourable balance of disorderly emotions? No freedom? Only impulses? And what about all the good I have in my heart—doesn't it mean anything? is it simply a joke? A false hope that makes a man feel the illusion of worth? And so he goes on with his struggles. But this good is no phony. I know it isn't. I swear it.<sup>85)</sup>

82) *Ibid.*, p. 7.

83) *Ibid.*, p. 8.

84) *Ibid.*, p. 183.

85) *Ibid.*, p. 315.

이러한 자신의 사랑의 감정은 남녀간의 사랑이나 가족간의 애정, 형제간의 우애, 그리고 인간과 인간간의 믿음과 인정(人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는 인간은 관념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진정 인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는다.

Herzog의 이러한 변화는 결국 그가 이성주의적 입장에서 초월주의와 초월주의를 넘어선 신비주의의 입장으로서의 전환, 다시 말하면, Joseph와 같은 태도에서 Henderson과 같은 태도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상의 변화는 그가 딸 June을 Madeleine과 Gersbach의 학대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총을 소지하고 Chicago로 달려갔을 때, 오히려 그는 Madeleine과 Gersbach에게도 그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고귀한 사랑의 감정이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데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혹 아니면 백, 또 선 아니면 악이라는 공식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그에게 이 목욕장면은 가히 충격적인 것이 된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하여, Henderson이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듯이 번듯 인간의 실상을 깨치게 되고, 그 깨달음은 절실한 것이 된다.

The human soul is an amphibian, and I have touched its sides. Amphibian! It lives in more elements than I will ever know....<sup>87)</sup>

...he had set himself up with his emotional goodies—truth, friendship, devotion to children (the regular American worship of kids) and potato love. So much we know now. But this—even this—is not the whole story, either. It only begins to approach the start of true consciousness. The necessary premise is that a man is somehow more than his ‘characteristics’, all the emotions, strivings, tastes and constructions which it pleases him to call ‘My Life’. We have ground to hope that a Life is something more than such a cloud of particles, mere facticity. Go through what is comprehensible and you conclude that only the incomprehensible gives any light. This was by no means a ‘general idea’ with him now. It was far more substantial than anything he saw in this intensely lighted telegraph office. It all seemed to him exceptionally clear. what made it clear?<sup>88)</sup>

여기에서 그의 깨달음은 인간이란 이성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게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되거나, 하나의 경구(警句)로 표현되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을 파악하려 하는 것은 단지 인간을 "각종 분자(分子)가 운집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밖으로 드러난 "mere facticity"를 보려 하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86) *Ibid.*, p. 214.

87) *Ibid.*, p. 265.

88) *Ibid.*, p. 273.

"...human life is simply the raw material of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of fashion, salesmanship, industry, politics, finance, experiment, automatism, et cetera, et cetera."<sup>89)</sup>로 보려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facticity"를 넘어서 있는 인간과 삶의 실상(實相)을 깨닫게 되고, 이와 함께 오늘날에도 인간은 "inspired condition"에서의 생존이 가능하며, 그래서 "진리의 서광(the light of truth)"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진리의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미천하거나 타락한 사람은 없음<sup>90)</sup>을 깨닫는다.

*Finally, Pulver, to live in an inspired condition, to know truth, to be free, to love another, to consummate existence, to abide with death in clarity of consciousness—without which, racing and conniving to evade death, the spirit holds its breath and hopes to be immortal because it does not live—is no longer a rarefied project. Just as machinery has embodied ideas of good, so the technology of destruction has also acquired a metaphysical character. The practical questions have thus become the ultimate question as well. Annihilation is no longer a metaphor. Good and Evil are real. The inspired condition is therefore no visionary matter. It is not reserved for gods, kings, poets, priests, shrines, but belongs to mankind and to all of existence. And therefore—<sup>91)</sup>*

이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세계를 넘어서서 존재하고 있는 세계의 드러남. 이것은 Herzog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 그는 이제 Ludeyville 고옥(古屋)으로 돌아와서 자연과 일체가 된 상황에서 현상(現象)을 넘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마지막으로 신(神)에게 이성적 판단을 포기했음을 선언하고는 그때까지 그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어떻게 보면 종교적 해탈의 경지에 가까운 정신적 해방의 순간에 이르고 있다.

He walked quietly into the woods, the many leaves, living and fallen, green and tan, going between rotted stumps, moss, fungus discs; he found a hunters' path, also a deer trail. He felt quite well here, and calmer. The silence sustained him, and the brilliant weather, the feeling that he was easily contained by everything about him *Within the hollowness of God*, as he noted, and deaf to the final multiplicity of facts, as well as, blind to ultimate distances. *Two billion light-years out. Supernovae.*

*Daily radiance, trodden here*

*Within the hollowness of God*

To God he jotted several lines.

89) *Ibid.*, p. 192.

90) *Ibid.*, p. 321.

91) *Ibid.*, p. 172.

*How my mind has struggled to make coherent sense. I have not been too good at it. But have desited to do your unknowable will, taking it, and you, without symbols. Everything of intensesst significance. Especially if divested of me.<sup>92)</sup>*

Whatever had come over him during these last months, the spell, really seemed to be passing, really going. He set down his hat, with the roses and day lilies, on the half-painted piano, and went into his study, carrying the wine bottles in one hand like a pair of Indian clubs. Walking over notes and papers, he lay down on his Recamier couch. As he stretched out, he took a long breath, and then he lay, looking at the mesh of the screen, pulled loose by vines, and listening to the steady scratching of Mrs Tuttle's broom. He wanted to tell her to sprinkle th floor. She was raising too much dust. In a few minutes he would call down to her, 'Damp it down, Mrs Tuttle. There's water in the sink.' But not just yet. At this time he had no messages for anyone. Nothing. Not a single word.<sup>93)</sup>

## VII

필자는 지금까지 Bellow의 소설에 나타난 "삶의 탐구"의 문제를 *Dangling Man*에서 *Herzog*에 이르기까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를 요약하여 결론을 맺으면 다음과 같다.

Bellow의 소설에 있어서 "삶의 탐구"의 문제는 Bellow 자신이 밝힌 바도 있듯이 그가 소설에서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Dangling Man*에서 *Herzog*에 이르는 일관된 중심주제가 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들도 모두가 삶의 탐구의 문제를 안고 있는 탐구의 인물이거나 아니면 삶의 문제에 불가피하게 얽혀드는 인물들이다.

Bellow는 *Dangling Man*에서 *Herzog*에 이르는 소설을 하나의 틀(frame)로 사용하여 삶의 탐구라는 그의 주제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고 있다.

먼저 *Dangling Man*에서는 이성주의자인 Joseph를 내세워 계몽주의의 이상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의 이성과 "관념적 구성"에 의하여 인간과 삶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인간과 삶을 얼마나 왜곡시키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Bellow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인간과 삶은 어떤 이론이나 "관념적 구성"에 의하여 이성적으로 파악되거나 정의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며, 어떤 이론이나 관념에 의하여 파악된 인간과 삶의 모습은 아무리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삶의 실상이 아니라 그 실상이 왜곡된 것으로 그것은 "recreated reality"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92) *Ibid.*, pp. 332-33.

93) *Ibid.*, p. 348.



*The Victim*에서는 다시 한번 Joseph처럼 하나의 경직된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삶을 파악하고 있었던 인물 Leventhal을 등장시켜, 경직된 고정관념에 의하여 파악된 삶의 모습이 얼마나 뒤틀린 것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룬다. 그런데 Leventhal은 Joseph과는 정반대로 비판주의적 결정론을 가지고 인간과 삶을 어둡고 추악하게 보는 인물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어떤 이론에 의하여 삶이 추악하고 저열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삶의 실상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Bellow는 이 *The Victim*에서 Schlossberg의 말을 빌어 삶의 실상은 "인간이상"을 지향하거나 "인간이하"로 전도(顛倒)된 삶에 있지 않고,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엄한 존재이며, 인간의 삶도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고귀한 것임을 암시한다.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에서는 삶에 대한 경험주의적 접근방법과 실존주의적 삶의 양상이 검토된다. 여기에서 Bellow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경험주의적 삶의 탐구의 결과 우리는 실존주의적 인간의 존재양상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것은 삶의 실재를 본 것이라기보다는 삶이 밖으로 드러난 현상, 즉 삶의 "facticity"를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실존주의적 인간관도 결국 하나의 관념에 의하여 파악된 것이기 때문에 삶의 본질을 밝혀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에서 Bellow는 삶의 파악방법으로서 경험주의적 태도와 실존주의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eize the Day*에서는 삶에 대하여 대립된 태도를 취하는 경직된 이론을 갖고 있는 두 인물의 삶과 파국적 충돌의 결과를 다루고, 이론에 의하여 파악된 삶은 그것이 이성에 의하여 파악된 것이건 감성이(感性)에 의하여 파악된 것이건간에, 그리고 그것이 설사 이상주의적이고 아름다운 것이건, 추악한 것이건간에 그것들은 삶의 실상이 아니라 삶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Wilhelm의 초월적 체험을 통하여 삶의 아름다운 실상이 드러나게 됨을 보여준다.

*Henderson the Rain King*에서는 Wilhelm이 인간의 실상을 보게 되는 초월적 체험이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발전해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Bellow는 Henderson이 체험을 통하여 신비주의의 입장에서 서구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에 바탕을 둔 실증주의 사상을 철저히 비판하고 삶의 실상은 신비주의적 체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됨을 보여준다.

*Herzog*에서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에 바탕을 둔 서구의 사상체계 내에서 삶을 파악하려 했던 Herzog의 좌절과 그 좌절 속에서 신비주의적 삶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Dangling Man*에서 *Henderson the Rain King*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삶의 탐구의 문제가 종합되어 마무리되고 있다. 특히 *Herzog*에서는 인간과 삶의 실상은 아름다운 것으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본질적 속성은 Augie March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사랑의 감정에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째 Bellow는 삶의 탐구라는 그의 소설의 제일차적 과제를 합리주의에서 신비주의로의 이행과정을 통하여 검토하고, 그 해결점을 신비주의에서 찾고 있다. 둘째, Bellow는

이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즉 밖으로 드러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와 이에 대립되는 본연의 세계, Bellow의 표현을 빌자면 "becoming"의 세계와 "being"의 세계로 파악하고,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에 바탕을 둔 서구의 실증주의 과학은 "becoming"의 세계에만 관계할 수 있을 뿐, "being"의 세계는 신비주의적 체험에 의해서만 드러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에만 의존해서는 "being"의 세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인간은 신비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되거나 하나의 경구(驚句)로서 정의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을 넘어서 있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며, 인간의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넘어서 있는 본질적 속성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사랑의 감정이다. 이 사랑의 감정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모든 것을 초월케 하는 것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Bellow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무의미함을 주장하는 20세기의 여러 가지 이론과 세력에 대항하여 인간의 고귀함과 위대함을 주장하고 인간을 변호할 수 있게 된다.

## Summary

## The Quest for Life and its Meaning in Saul Bellow's Novels

Yang Kyoung-soo

As H. M. Harper says, the exploration of this mystery of human life is the purpose of Bellow's art. Accordingly, the understanding of how Bellow comes to a true knowledge of the reality of lif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appreciate his novels. In this essay, Bellow's quest for life and its meaning in his novels from *Dangling Man* to *Herzog* is discussed. The main results of this discussion are as follows.

1. In his novels Bellow searches for the reality of life through several systems of knowledge, for example, the thoughts of rationalism, empiricism, existentialism, and mysticism. His point of view shifts from rationalism to mysticism.

2. Bellow sees the reality of this world from the dualistic viewpoint. He suggests that reality consists of "false reality" and "genuine reality"—in Bellow's words, "Becoming" and "Being." The false reality, "Becoming," is the ever-changing phenomenal world, and the genuine reality, "Being", is the unchangeable, essential world in opposition to the former.

3. Bellow shows us that through the modern positivist systems of thought based on rationalism and empiricism, we can understand only the false reality, the world of "Becoming," and not the genuine reality, the world of "Being." The latter is revealed only through our mystical experiences. In other words, Bellow takes the position that we cannot reach the essence of the genuine reality through man's reason, but that we can seize the essence only through the mystical approach to human life.

4. From the viewpoint of mysticism, a man is not a being who can be defined or explained in an epigram or with a theory, but a being who is beautiful and mysterious beyond the understanding of reason. Man's most precious mystical essence beyond the outward phenomena is a feeling of "love." Every man has this feeling of love, and this love makes a man a man and enables him to transcend and overcome all the restrictions which lay upon a human being's nobility. Therefore, it is because he can get at such a

mystical essence of man that Bellow can insist on man's nobility and beauty and defend a human being against the 20th century's various thoughts and social forces that clearly express the nothingness of human existence.